

## 결핵, 아직 끝나지 않은 이름

임용순(제일경제신문 보건의약부 차장)

폐병으로도 표현되는 결핵, 이는 분명 후진국 병이다. 우리 나라가 험벗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50-60년대에 많이 발생했던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혼자만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감염이 됐다하면 난치병으로 여겼던 것도 불과 30여 년전의 일. 결핵은 21세기를 달려오면서 우리에게는 잊혀진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일까? 경제성장과 더불어 잊혀졌던 결핵이 다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결핵 사망률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8년 1년간 국내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은 3천314명으로 집계돼 결핵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7.1명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결핵사망률은 29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미국 0.5명, 영국 0.8명, 일본 2.3명, 중국 4.9명) 특히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수가 4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핵 인구 1백명당 1명이 결핵환자인 셈이 된다.

또 '98년에는 경기도 일부 고교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해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집단감염은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급속한 전염을 초래할 수 있어 극한 상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특히 결핵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폐결핵의 경우 신규환자중 생산연령층에서의 높은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큰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암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결핵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한 실정이다. 결핵환자는 지난 65년 5%에서 현재는 1%미만으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전염성 또한 강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 자신도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결핵을 천연두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

진 병쯤으로 여기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결핵은 사라졌다가 재등장하는 병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 곁에 존재하는 질병이었음에도, 의식 속에서만 소멸시켜 버린 것이다.

결핵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다만 잊혀진 병이기에, 망심한 틈을 노리고 공략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그동안 5년간격으로 실시해 온 결핵실태조사를 전국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의 정보를 매년 취합해 결핵정보감시체계를 구축, 오는 2005년까지 결핵유병률을 0.4%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결핵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으로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결핵약이 나왔다는 이유도 있지만, 결핵예방약이 큰 역할을 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65년 1백명당 24.3명에서 '90년에는 86 0명으로 늘어나 결핵예방주사를 맞은 만큼 결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한 실정은 아니다. 의료계의 통계에 의하면 만 네 살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BCG 접종률은 78%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CG는 어른보다 소아들에게 예방효과가 더 크다. 소아가 결핵에 걸릴 경우 결

핵성뇌막염이나, 속립성 결핵같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BCG는 결핵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생후 가능한 한 빨리 접종토록 권장하고 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핵에 대한 인식 환기, 이제 우리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卍